

A 75-year-old woman presented with an egg sized, dome shaped, erythematous and verrucous surfaced nontender mass on the left side of labia major for 2 years duration.

Dermatologist noticed an ill-defined whitish patch on the labia minor beyond the mass as well. Biopsy and multiple scrapings from the mass and ill-defined patch were performed under the impression of squamous cell carcinoma or Bowen's disease.

Characteristic Paget's cells were identified isolated or in groups in the background of benign-looking squamous cells and inflammatory cells on smears. Histologic feature is identical to that of scrapings.

3. 경흉 세침 흡인 생검으로 진단된 이물 육아종 : 1 예 보고 Foreign Body Granuloma Diagnosed by Percutaneous Transthoracic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A case report-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송상용, 박인애, 함의근

경흉 세침 흡인 생검이 1966년 Dahlgren 과 Nordenstrom 에 의해 처음 시도된 이래 악성 종양성 병변 및 양성 종양성 병변의 진단 뿐 만 아니라 아스퍼질로시증이나 방사선균증, 폐흡충증 및 주폐포자충 폐염 등의 비종양성 병변에서도 특유의 군사, 총관 혹은 총체 등을 관찰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하여 이 진단수기가 비종양성 병변의 진단에도 유용함이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들은 세침 흡인 생검으로 이물 육아종으로 진단되어 탐색 개흉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1 예를 경험하고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24 세의 남자로 추적 흉부 X-선 검사상 나타나는 우폐 하엽의 불명확하게 한정되는 흑화도를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환자는 1년전 점막 표피양 암으로 우폐 중엽절제술을 받은 과거력을 갖고 있었다. 과거력상 결핵은 없었고, 과거 절제된 종양의 재발을 의심하여 경흉 세침 흡인 생검이 시행되어졌다. 도말 표본의 세포학적 검사상, 림프구, 조직구, 유상피 세포 및 다핵 거대세포들이 발견되어 육아종성 염증의 소견이었으나 결핵시 흔히 관찰되는 석회화된 입자나 세포 피사물질은 관찰되지 않았다. 세포군집(cell-block) 검사에서는 이물질을 탐식하고 있는 다핵 거대세포와 조직구, 림프구등으로 구성된 이물 육아종을 관찰할 수 있어 세포 군집검사의 유용성과 함께 비종양성 병변 진단의 경흉세침 흡인 생검의 유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